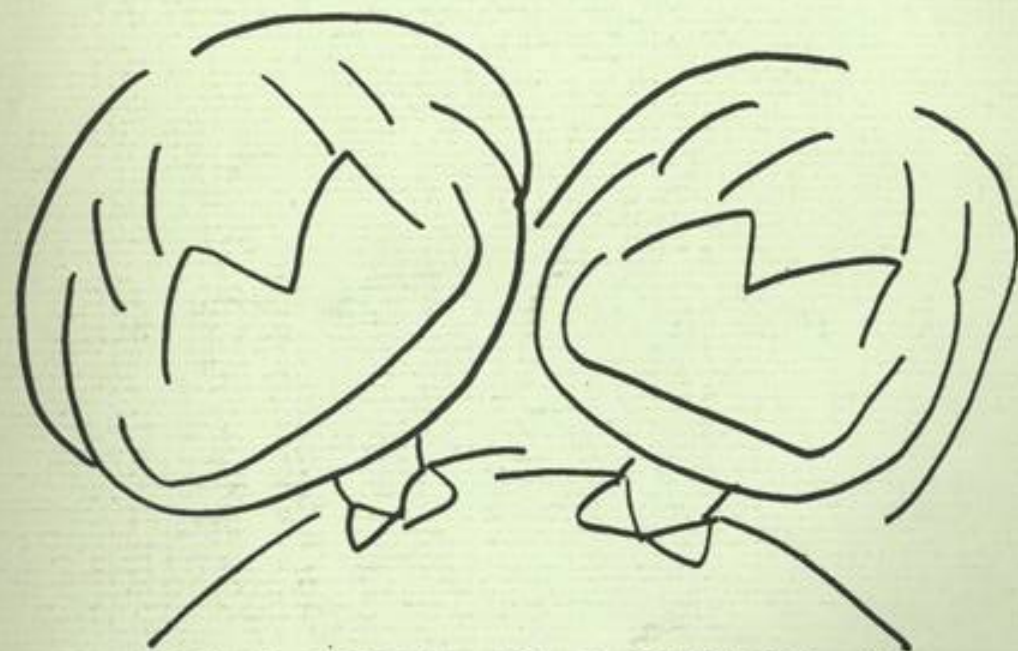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다지 힘들진 않았죠?
(그러리라 믿어요..!!!)

우리 모두 함께니까요....!!!!
우리 관악여성모임연대잡아요..!!



드디어 여모가 1살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모여 다같이 축하해요.....!!(*^^*)

일시: 1998년 5월 2일 (토)

장소: 공대 자치도서관

글찾기

1. 총론

98 관악여성모임연대총론

2. 연대의 지점들

2.1 기지근

2.2 노동

2.3 동성애

2.4 정신대

3. 조직과 위상

3.1 공대위팀

3.2 연대사업팀

3.3 연대회의팀

4. 97년 활동평가

4.1 4·19데라톤 포스트

4.2 봄대동계 고사

4.3 봄대동계 영화 상영

4.4 도서관 성추행 사건

4.5 구교수 공대위

4.6 학생대회

4.7 총학선거

4.8 새터 영화 제작

4.9 97년 연대회의

5.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진행 상황

5.1 인문대

5.2 사회대

6. 단위소개

1. 98년 관악여성모임연대 총회

0.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답답했어. 견딜 수 없어지면 난 하룻밤의 술자리로 가래 뱉듯 확 뱉어 버렸지. 하지만 1년 사시사철 그래왔자 여전히 내 안의 찌꺼기는 늘상 존재해 왔어. 그건 어느 곳에서도 해소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다 우연히 너희들을 만난 거지.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가래 뱉기를 하던 너희들을. 같은 이유로 모인 우리지만 우리에게 '다름'은 그만큼 서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관악의 여성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관악여성모임연대가 시작된지 2년여를 맞고 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이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했던 가장 낮은 수위의 동의였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그 속에서의 경험들이 아프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억압받는 여성에 대해 편들어주기'부터 시작했다. 정신대 그리고 술한 성폭력 문제들. 그러한 속에서 "왜 여성운동이냐?"라는 질문에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란 "여성은 억압되어 있으니깐" 였다. 그리고 돌아서면 무수한 헛갈림과 궁금증과 혼란스러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작지점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그 복잡한 실마리들을 풀어볼 생각을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는가?" "우리는 왜 여성운동을 이야기하는가?"

요즘 어느 곳에 가도 '성', '페미니즘'이란 단어사용이 유행처럼 난무하고 있으며, 마치 '성'에 대해 한 마디 진보적인 양 발언하지 않는다면 구태의연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변혁적 관점에서의 진지한 문제제기로서의 성담론'과 '남근 중심적 문화에 기반한, 자본과 결합하여 상품화되어지는 성담론'에 대한 구분 없이 이치럼 쏟아지는 '성'에 관한 이야기는 페미니즘, 여성운동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오해를 낳고 있다. 페미니즘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거나, 자격지심에 가득 찬 목소리 큰 여성들의 운동으로 또는 부르주아여성들의 이기적이고 자족적인 운동으로 취급되기도 하며, 지식인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교양학문쯤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왜 여성운동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추구함은, 우리의 페미니즘, 여성운동을 수많은 왜곡된 담론 속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언어로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서로 논하고 고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언뜻 언뜻 보이는 무수한 가능성들이 물화 되어질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다.

1.

여성은 없었다. 그 어느 곳에도.

남성만을 의미해왔던 '인간' 또는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인간의 지나온 역사(History)와 그에 기반한 현재의 현실에서.

여성이 남성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사회에서 여성을 남성에 종속되는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화된 인식이다. 그러하기에 여성은 늘 자신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남성들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처녀나 매춘부로서 정의되었을 뿐이다. 여성은 한번도 독자적인 주체로서 존재한 적이 없다. 여성은 늘 남성적인 것에 대한 '반대', '열등', '결핍'으로서만 존재해왔다. 즉 여성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하나가 아니라 주변적 존재가 되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존재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의 '타자'성에 주목한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너무나 강력하게 개개인에게 다가왔다. 주변적 존재로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 여겨지는 '열등함'과 '하찮음'등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여성억압이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모순이 아니라 남녀간의 사적 문제이기에 '사소한' 것이라는 논리나, 여성운동이 남성적 시선에 의해서 무수한 오해와 편견을 받았던 것도 현실에서의 이러한 성의 위계질서가 반영된 것이다.

감성/이성, 자연/문명, 육체/정신과 같은 이분법의 근대적 사고가 등장하면서 이성, 문명, 정신은 남성의 성질로서 우월하고 반면 감성, 자연, 육체는 여성의 성질로서 열등하다는 식의 구분이 성립되었다. 공적/사적 영역이 분리되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배당되었으며, 남성은 거대한 짐승처럼 강인할 것을 요구받았고 여성은 소위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예쁘게 치장된 나약함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분리들 속에서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의 우열 또한 결정되었다. 그것은 본래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 것도, 본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배타적으로 분할되는 것도 아니었다. 여성에게 부과된 의미들은 그것이 단지 여성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것이 되었다. 현실에서 실체적 의의를 갖는 것은 그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에 부과하는 사회적 의미들인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남성 지배 및 여성 억압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우월하다는 식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으며, 그것은 다시금 남성 지배의 논리를 강화시켜왔다. 이는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덕택에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객관의 탈을 쓴 사회생물학은 수많은 가치판단을 대신해 주었으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사람들은 양성의 구분과 그 '본질성'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한다. "보아라. 남성에게

의해 만들어진 역사를. 당신들은 뒤에서 열심히 내 심부름을 해달란 말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성이며 당신의 원래 자리이다. 그래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잘 살 수 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권력은 또한 여성의 동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조건화에 의해 획득되고 있다. 여성에게 부여된 수많은 가치와 역할들 속에서 여성은 자기존재를 규정하게 된다. 사회가 제시하는 정체성에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여성 역시 남성권력을 공고화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한 존재로 자리잡히면서 여성들간의 계급연합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것이 남성이 지닌 사회적 헤게모니인 것이며 종속의 종속을 낳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규정의 과정이 언제나 끊임없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은, 여성자신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반문의 가능성을 또한 부여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개념들과 여성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경험들이 충돌과 혼란을 맞고 자기분열을 겪으면서, 여성은 자신을 규정하는 굴레에 문제제기하고 정체성을 고민하는 투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갈 새로운 여성의 모습에의 추구는 사회의 모든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여성억압이 남성의 우월성이라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그것이 논리를 다시금 공고화시키고 있는 순환논리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생산과 재생산의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하며 그 안에서 여성성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성적 차이에 근거한 대등한 권리, 즉 인간의 권리라는 말로 환원되어져(혹은 삭제되어져)왔던 여성권-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정의해야 한다. 이것이 '성차에 기반한 우리 투쟁의 중심성'이다.

이러한 작업은 아울러 한 쪽 성을 넘어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의 실주체로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권리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과 함께 해야 할 것이며, 그에 기반한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 명확한 것은 규정된 삶과 가치는 현재 살아가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인류 전체에게 부자유와 과도한 억압을 부여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성에 따라 정형화된 사회적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배체제에 균열을 내는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요구로, 그 가능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2.

남한 사회에서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환경, 정보,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80년대 이후 부문운동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 되어 왔다. 이러한 부문운동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은 남한 사회 내에

서 이른바 '시민사회 영역'이라는 것이 고민됨과 동시에 현 세계 자본질서의 문제에 집중하는 노동운동과 제 3세계 남한 사회의 특수성의 문제에 집중하는 통일운동 이외의 다른 부문들에 대한 운동 영역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급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즉, 계급모순과 식민지모순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많은 모순들이 폭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운동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성과와 역사들을 창출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대담론이라고 여겨지는 노동 및 통일운동에 대해 종속적인 역할 이상을 점하지 못하고 있다.

'주체운동'이란 사고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독자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운동의 역사성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이들 운동들이 앞선 두 가지 운동양식보다 현 시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사회에 대한 비전 및 방식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이 부문운동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맥락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소수'로서 사고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지만(여성에게 '사소함'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이 부문운동으로 사고되었던 것은 '여성'이 오랜 피억압자라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해명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여성운동이 다른 부문운동과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앞에서 살펴본 이 시대 '여성'이 놓여있는 위상과 연결하여 찾아보자.

첫째, 여성운동은 그 성격상 자아로부터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운동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혁입과 동시에 다시금 자아 및 공동체의 변혁을 약속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사회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변증법적인 관계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하다. 즉 사회의 변혁이란 다시금 각 개인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하며, 반대로 자아의 변혁만이 새로운 운동의 방식을 진술하게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아의 변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집단과 다를 바 없으며, 반면 사회의 변혁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상적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 이와 다르게 진정한 변혁운동의 근거는 현재 존재하는 인간들의 현실적 가능성에 뿌리를 둔 채로 사회의 변혁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가 가져 올 자아의 재구성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여성운동이 가질 수 있는 현재의 가능성은 확장된다. 다른 부문운동과 다르게 여성운동은 억압의 지점 자체가 외부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제기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시대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남성 주류집단들에 의한 소외 및 배제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촉발시킨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행위는 곧 사회의 물적 토대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끔 하며, 반면 현 사회 구조의 인정은 자기 자신의 부정을 낳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진행된 공사의 분리는 다시금 자본의 이윤 논리에 의해 그 경계가 해체되어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여성'이 놓여져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자아 및 공동체 재구성 문제와 사회 변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통일성을 역사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은 역사적으로 '타자'로서 자리 매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른바 각종 보편적인 원리에서부터 배제되어왔는데, 심지어 이것은 운동 진영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만큼 여성들은 항상 보편적 기준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것의 근거는 흔히 알고 있듯 여성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이중적 피억압자라는 사실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은 '여성'에게 주류 질서로부터 배제되어온 자-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으며, 또한 이성의 정언명령에 위배되는 육체 및 감성의 문제에 민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이라고 범주화되지 않는 여러 타자들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 폭넓은 연대를 가질 수 있었다. 한 가지로 환원되지 않은 다양한 질서들이 존재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한 인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다른 수위의 억압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이 시대 변혁운동에게 주어진 과제인 새로운 사회의 대안적인 질서, 정치적인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 '현 시기'여성들에게 주어진 이른바 '여성성'의 내용이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인지 혹은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간낭비다. 단지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조차도 자신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각종 역사적, 사회적 경험들을 어떠한 외부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진정한 능동적 주체로 서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변혁에 긍정성을 함유할 수 있다면 행동하는 데 더 이상 머뭇거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 인류가 살 길이다.

3.

이른바 여성운동은 17-18세기에 태동되었다고 이야기되어 진다. 당시의 여성운동은 물적 조건으로는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했던 것에, 사상적으로는 이른바 천부인권설을 비롯한 각종 계몽사상에 기반하고 있었다. 근대 사회 이전의 이른바 농촌 사회 내의 여성들은 결코 남성들에 대해 배타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는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그들의 성차에 의하여 따로 분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기 여성의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역할 신장'이 문제는 단지 남성 대 여성의 대립구도 속에서 획득된 것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 시대적 물적 구조 및 여타 사회 관계의 맥락 속에서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은 약300년의 역사를 가져왔다. 이른바 제 1단계 여성운동이라고 이야기되던 시기에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악자'를 대변하는 운동이었다. 즉 여성운동은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더 많이 획득하는 문제에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적 억압 속에 적나라하게 놓여져 있는 여성들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악자들의 저항'이라는 성격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보통선거권을 획득하는 문제에서 만도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사실상 인간의 자격조차도 부여받지 못한 사회 속에서의 '타자'였다. 그 때문에 여성운동은 항상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종 '타자'들과 더불어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들을 비판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 당시의 운동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남성과는 다른 독자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 처한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제 2단계 여성운동은 그야말로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해 보다 천착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남성에 대립되는 지점으로서의 여성의 구별되는 특성, 이른바 '여성성'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하였다. 여성성에 대한 긍정은 각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경험에 대해 긍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여성운동의 성격을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피착취자뿐만 아니라 계급적으로 다양한 지형의 여성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위하여 여성운동은 이제 '여성'이라는 동일성을 운동의 가장 중심 되는 고리로 강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제 2단계의 여성운동은 보다 많은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대비된 무차별적 '남성'을 일차적인 적으로 규정하면서 변혁운동에 있어 점차 배타성을 띠게 되었다. 더불어 여성 내부의 다양성은 철저한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로 귀결되어 현실에서 어떠한 공동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없게 되는 내적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현재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되는 흐름 속에서 여성운동은 제 3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이성 혹은 보편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근대 이성의 역사가 '합리적'이라는 단어에 의해 무작정 옹호되고 신비화되었던 것에 반대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의 폭력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성은 복수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또한 주체성은 다층적이고 모순적이며 한 가지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본질주의에 반대한 우연성과 차이가 긍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주체를 탈중심화함으로써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 자체를 해체해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적인 결론으로 귀결됨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자체 내에서 다음 사회에 대한 비전 및 정치적 활동의 근거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의 억압구조를 가부장제, 자본주의 중 어느 것 하나로 혹은 이 둘만의 원인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하고 중층적인 모순들을 함께 풀어나가지 않는 한 성억압은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 안에서 인종, 계급, 지역 등 권력의 다른 요인들을 가로지르며 여성들을 분할하는 차이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아왔던 기존의 여성운동에 대해 우리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4.

이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여성집단내의 '차이'의 문제이다. 즉 계급, 인종, 지역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입지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해 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들에게 사회에서 더 많은 권익이 주어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일과, 이 사회의 기본 토대들을 비판하는 일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계급, 인종, 지역, 환경, 민족, 정보, 교육 등 이 사회의 다양한 모순들을 풀어나가려는 각 운동들과 우리운동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범주의 문제들로 보이지만 또한 다른 문제가 아니다. 성모순과 다른 억압요인들은 현실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것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안적 운동방식으로 '여성적 방식'과 '연대'를 사고한다.

지금까지의 여성운동 역시 가부장제를 그 일차적 적으로 규정하고 가부장제의 타파를 위해 남성 전체를 하나의 적대적인 계급으로 상정해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각종 변혁운동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었다. 즉 자본관계를 일차적 적으로 규정하고 자본관계의 타파를 위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는 것에서부터 암암리에 유추되어 온 결과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암시즘의 문제설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혹은 암시즘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논리 뒤에 숨어져 있는 '방식'의 문제, 혹은 변혁운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기존의 운동은 분명 억압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 운동의 방식은 억압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억압적 권력을 생성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저항세력을 보다 '빨리'강하게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차적인 적을 규정하고 중앙집중적 체계 속에 힘을 집중하는 방식은 그것이 '저항'에 있어 막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싸움의 승리 이후 내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권력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는 딜레마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기존 운동방식의 한계이다. 그들은 제거해야 할 억압의 문제에는 관심을 집중했지만, 이후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을 마련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결국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으니 괜찮다'는 식

의 자기 모순에 기반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순수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자기 오만에 빠질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이 반복되는 순간 이미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문제는 하나의 억압을 다른 식의 억압으로 되바꿈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인간 개인의 정체성이란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동의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정체성은 복합적이고 자기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에 의해 부여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개인의 역사와 그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갖가지의 요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성운동을 바라봄에 있어서, 또한 여타 운동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차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여성운동에 문제 제기함은 이러한 이유이다. 이것은 여성운동 내부에서의 질적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여성운동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성차에 기반한 투쟁의 중심성은 항상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가부장적 질서와 그와 유사한 각종 중심권력들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우리의 운동에 있어 한 축의 중요한 중심으로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투쟁들과 결합된 문제들을 새로운 비전으로서 확장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효율성'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외부에서 '타자'를 재생산해내며 폭력을 강제하는 '효율성'의 정식을 과감히 폐기하고자 한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축이 결코 모순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연대'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성'에게 주목하며, '여성적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희생, 범죄, 전쟁에 근거한 문화로부터 여성은 언제나 타자로 존재해왔기에 그러한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억압에의 도전이 또 다른 억압을 낳는 자기 순환적인 딜레마를 피하고 진정한 차이 긍정과 이를 넘어선 연대, 대안적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가능성을 학습해왔기 때문이다.

'여성성'과 '여성적 방식'에 대한 고민은 이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이나 우월의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남성에 의해, 사회에 의해 정의되어온 부정적인 여성성 역시 여성성이라 불리면서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그리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추상적인 시각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성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은 그야말로 공중에 떠있는 이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나와 타인과의 차이가 더 이상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압하지 않는 관계를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로서 제기되고,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투쟁의 결집력을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성과 여성적 방식은 우

리가 만들어가며 구체화해야 할 문화이자 정치인 것이다.

5.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에 대항하고 '여성권'을 찾고자하는 운동이다. 또한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운동이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사회가 강요하는 획일화된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과 함께 하며 사회의 모든 지배적 가치에 대한 투쟁과 함께 한다. 여성운동은 그리하여 '성'이 더 이상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평등한 관계맺음을 위한 소통으로서의 그것이 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한다.

또한 여성운동은 이러한 과정을 '여성성'의 복원을 통해 이루어내려한다. '여성성'에 기반한 '여성적 방식'은 폭력을 강제하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며 환원주의적인 운동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며 '연대'라는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긍정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로서 여성운동은 '여성'에 주목하는 운동인 동시에, 각종 운동에 대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 여성운동이냐?"에 대한 답, 혹은 "현시기 여성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든 일이다. 우리에게 여성억압의 현실에 대한 고찰, 현실에서 여성성, 여성적 방식의 구체화에 대한 고민 등의 과제들이 더욱 많이 남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정교해지면서 우리의 총론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2.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서..

총론에서 논의된 연대가 단지 총론으로, 우리의 내부 담론으로 주저앉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연대의 가능성을 위해 한 걸음 내딛고자 한다.

지금까지 관악여성모임연대가 그 내부의 연대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연대에 힘을 실어 운동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한다. 더 이상 지겹도록 계속되는 성폭력 사태들에 함몰되어 있기를 거부한다. 여모 내부의 연대를 확고히 하고 외부와의 연대를 담보해야한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능성들의 문을 두드린다.

1. 노동

자본주의의 시장은 끊임없는 분할을 통해 자신의 생을 유지한다.

애초에 그것은 농촌의 공동체를 사회의 균열구조를 따라 분화했다. 그 균열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성,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등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은 그렇게 노동자와 자본가를 태동시켰고 노동시장은 다시 노동자와 산업예비군, 우월한 노동자와 열등한 노동자,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지식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 등으로 분할하였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노동전략은 그러한 분열과 배제를 아주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시장은 사람들을 분할하여 끊임없이 싼 노동력을 찾아 헤맨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자본주의가 먼저냐, 가부장제가 먼저냐라는 해묵은 논쟁이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가부장적 존재였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지금까지 그들은 여전히 대부분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순은 인류에게 들이닥친 최초의 모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 발전의 몇 안 되는 단절의 시기인 자본주의 체제는 전통적인 신분질서와는(새로운 계급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단절을 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전근대적인 모순들과는 결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화시켰다. 자본주의하의 여성, 그리고 성모순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은, 그리하여 남성 자본가 혹은 포주가 남성 소비자를 노린 하나의 살아있는(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매력을 자극하는) 상품이 되거나, 값싸고 자르기 쉬운 노동력이 되거나, 남성 노동자의 '시디'와 가정부, 그리고 보모가 되는 것이다.

1998년 한국자본주의가 맞고 있는 위기는 이러한 계급적, 성적 모순(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전근대적 모순)을 폭력적으로 가동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IMF 시대에 여성이 불법 정리해고의 제 1차적 대상이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IMF한파가

몰아닥치기 시작한 97년 3/4분기 고용동향은 전년도 대비 여성실업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7배나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바탕한 논리의 핵심은 부양책임이 가벼운 여성들이 몰려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퇴직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아이 딸린 기혼녀라는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논리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전체가구중 여성 가구주의 가구비율은 16.6%이고, 전체 홀부모 가구의 94만 2천호 중에서 83%인 78만 7천 가구가 모자가정이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남성의 61.5%(96년 기준)이고 절대다수인 62.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업급여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이들 중에 일용노동의 비중이 16.1%로 남성에 비해 23% 높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을 받는 대상은 여성이며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명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압도적인 숫자는 계급적인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8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이 대기업 남성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왔다는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은 전국적인 틀의 노조가 중심이 되는 하청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노동을 자본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남성화' 역시 걱정스럽다. 이른바 진보진영에서의 뿌리깊은 성차별과 성별분업은 '말'지나 통신상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조의 간부들은 여전히 남성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 지난 번 국민승리 21의 포스터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일어나라, 노동자!"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강인한 두 남성의 모습과 함께 "온 가족의 밥줄이 걸린 하늘같은 당신"이라는 글이 써여있었다. 여성 노동의 사회가 이미 반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가장=아버지"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계급적인 차원에서 여성노동자와 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된다. 빛나는 커리어 우먼의 신화가 쓰러져버린 지금 우리 스스로가 시장과 자본주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근본적으로 단절하지 않는 한 여성해방의 길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2. 연대 지점으로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동성애자 문제, 특히나 그들의 인권문제를 페미니즘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험거운 일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여성운동, 특히나 대학가의 여성운동은 주로 성폭력 타파나 여성 복지 차원에 그 중심이 있는 반면,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현재 주로 동성애자 내부의

정체화와 차별 타파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연대 지점이 모호해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꽤나 진보적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페미니스트들조차 동성애자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내부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여성모임이나 성정치 모임의 인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용어 정리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주로 여성문제 그 자체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성 자체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자신의 활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여성 억압이라는 문제는 자본의 논리와도 연결되어 있고,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녀를 가름하는 생물학적인 성성에도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알지 못하고 여성의 재생산과 여성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없으며, 남성 해계모의 역사적 추이와 구조를 알지 못하고 가부장제와 가족주의에 대해 비판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페미니즘, 혹은 여성해방론은 언제나 여타의 사회적 모순에 눈을 돌려야만 할 것이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여타의 사회모순 중에서도 페미니즘과 가장 흡사한 구도를 가진 운동진영으로서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모범이다.

먼저 억압 기제의 유사함으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 보자. 차이(差異)의 신화와 성성(性性)의 고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부장제는 여성과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여성에게 있어 생물학적인 성별(sex)의 차이에서 차별이 연유한다는 사실은 동성애자에게 있어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의 차이에서 차별이 연유한다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제적이고 가족주의에 휩싸인 사회에서 동성애가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억압기제의 유사함, 아니 일치하는 끝, 운동방향이나 이론정립에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관악여성모임연대가 연대지점으로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품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했던 페미니즘 진영 내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의 경우, 작금의 페미니즘과 여권신장이 있을 수 있게 한 하나는 급진적 페미니즘, 그 중에서도 레즈비언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조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레즈비언주의는 여성 복지문제에만 주로 집중하여 근원적인 억압과 차이의 신화에 도전하지 못했던 이전의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남성문화의 비판, 가부장제의 타파,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여성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후 여성주의가 보편화되고 여권신장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자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은 레즈비언을 분리주의자라 비판하며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동성애자 인권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으나 엘리트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기성 페미니즘 진

영과의 마찰이 심하다고 한다. 이는 우리 나라 역시 마찬가지여서 여성동성애자 모임인 '끼리끼리'의 경우 타 여성단체와의 연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악여성모임연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과 여성주의가 함께 서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대 활동을 모색하려 한다. 이미 관악 동성애자/이반 인권운동모임인 마음006이 관악여성모임연대의 연대체로서 자리 매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적인 실천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관악내 여성운동은 여성운동 자체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한 해결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의 연대 지점 중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3. 일군위안부(정신대) 할머니와의 연대투쟁에 대한 소고

지난 36년간의 치욕의 역사라며 종종 우리의 드라마 소재에도 오르는 대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일군위안부 소위 정신대 이야기다. 순결한 조선처녀들이 늑대 같은 일본 놈들에게 성적으로 유린 당한다는 주제는 우리의 민족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큰 매개였다. 하지만 그런 분노에 휩싸여 우리는 정신대 문제를 접하면서 정작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입장,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닐까?

우리 나라에서 정신대 문제가 실질적으로 거명되기 시작한 것은 채 십 년도 되지 않는다. 그간의 군사정권하의 언론 통제와 함께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하여 국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기분이 없어졌다. 그러나 민주화의 바람과 정대협이 90년에 발족하면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고 국제법상의 일본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강도가 더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사죄, 정신적 물질적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집회는 이제 200회를 넘었다. 군 위안부의 증인이신 할머니들도 고령으로 벌써 17분이나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정부는 국민기금사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군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 하고 있다. 민간 기금이란 방식은 일본정부가 위안부제도라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군과 정부가 인도에 반한 범죄를 범했고, 강제노동 금지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기금이란 방식은 어떠한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단지 생활기반이 빈약한 할머니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늦게나마 3800만원의 지원금을 국민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에게 지급했다.

정대협활동과 국제적인 연대활동이 있기 이전의 할머니들의 삶은 과거의 피해를 숨긴 채 아무런 풀뿌리 같은 삶을 연명해야 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혹은 돈을 벌게 해주

겠다는 속임수에 한창의 나이에 군 위안부라는 삶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돈은 한푼 받지 못한 채 머리를 잘리고 매일 강간을 당하는 사지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우리의 민족 사회에서는 몸을 버린 여자라며 죽음을 강요했다.

'일제가 준 수치 때문에 수많은 군 위안부 여성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부산항 앞바다에서 꽃같은 목숨의 버렸다'는 아름답고 순결한 한국 여성에 대한 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 위안부 생활에서 도망쳐 온 여성이나 전쟁이 끝난 뒤 조국으로 돌아온 여성을 억압하며 유폐시킨다. '환향녀'가 '화냥년'이란 바람난 계집이란 뜻의 욕으로 바뀌버린 가부장제의 남성성에 의해 전쟁의 극심한 피해자였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과거의 피해를 수치로 알고 호소할 곳 없이 40년 가까이 지내온 것이다.

'화냥년'이 되어 묻혀 지냈던 종군위안부 할머니가 요즈음에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군 위안부 할머니가 적인 일본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의 존재 사실은 일본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군위안부 할머니에 의해 간간이 진술되는 조선 남성에 의한 성폭행이라든가 조선인 민간업자에 의한 사기 징집은 민족의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다. 종군위안부의 고통은 민족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민족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한 한 방법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전쟁에서의 침략자나 피해자 모두 여성을 민족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적국에 대한 보복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실제로 피해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민족이란 담론에 묻혀 버린다. 결국 민족이란 것도 이제까지 주도권을 잡아온 남성들의 시각이다. 대개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피해란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피해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라 불리는 것에는 힘없는 여성과 어린이가 항상 존재한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으나 소위 외전, 야사라는 이야기를 모아보면 전쟁 중에 몸을 버린 여자들이 나온다. 전쟁 중에는 언제나 여성에 대한 강간이 있어 왔으며 그것은 주목할 필요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 군 위안부의 배경에는 남성은 자연적인 성적 욕구를 가졌으며 그러한 욕구를 풀어주는 일을 당연하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므로 전쟁시, 군대라는 상황에서는 군인을 '위안'해 줄 위안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 정복자는 식민지 여성을 정복된 사회의 전리품이나 사용 가능한 그 사회 자원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식민지 여성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된다. 또한 전쟁시에서도 여성은 적국의 자산으로 효과적인 보복 수단이 되어 피해 국의 여성은 대량으로 강간당한다. 국가라는 권력과 민족이란 담론은 여성의 전쟁이란 특수상황(?)에서 당하는 성폭력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라오스 정부 등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같은 민족인 여성에 대한 강간과 폭력이 정권의 비호아래 무수히 저질러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미군은 고원지대를 수색하며 한낮의 권태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을 일삼았다. 1971년 방글라데시가 독립선언을 했을 때 파키스탄 군대에 의해 9개월 동안 20여만 명의 여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군 기지의 주변을 합법적인 매매춘과 성폭력의 소굴이 되어 버렸으며, 한때 이 나라 정부는 이곳 여성

들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자들'로 칭하고 미군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미군기지 옆의 사창가에서 미군에 의한 성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일본대 한국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민족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 군 위안부 문제가 일찍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발로인 동시에 여성 억압적인 사회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여성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전쟁 국들의 도덕성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남성의 성적 욕구는 이성인 마비된 전쟁상황에서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남성적 사회의 성적인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 2,3의 군 위안부 문제는 다시 일어날 필연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군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 버린 여성 억압적인 문화는 철폐되어야 한다. 더불어 할머니들에게 이제까지 뚜렷한 복지정책 없이 일본정부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된 우리 정부정책의 모호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활고로 일본의 국민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할머니들의 처지를 비난한다면 우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강제적인 힘에 가장 큰 여성의 조건이었던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말없이 이제까지 지내오신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사회에서 또다시 일어날 모든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성적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투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관악여모에서는 일본에 의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만이 아니라 군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우리사회에서의 남성적인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타파에 의의를 둔다. 이것은 학내 성폭력 문제와 더불어 성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내의 공유와 정대협과의 연대를 추진해 갈 것이다.

4. 기지촌 연대활동

여성이 실질적인 노동시장 등에서 당하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제도와 체제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가장 첨예한 형태인 매매춘은 통시대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 존재해 왔으나, 이 역시 제도의 문제로 사고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매매춘이 오늘날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일제치하에서의 일본 매매춘 여성들의 대거 유입과 식민지 사회의 궁핍화 현상이 많은 여성들을 매매춘으로 끌어들이고, 1916년 정부가 매매춘을 합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창제를 실시하면서부터이다. 해방후 일본이 몰

리가면서 공장제는 폐지되었으나 국토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미군기지가 계속 주둔하게 되면서, 이는 기지촌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매매춘을 형성시켰다. 또한 우리 나라는 60만 명의 장정들이 3년여간 군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존속되면서 왜곡된 군사문화, 집단적 남성문화를 만들어 갔고 이것은 광범위한 매매춘군을 형성,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비대해진 향락산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묵인을 넘어서는 정책적인 지원(70년대의 기생관광 장려 등),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이중적인 성윤리의 온존 등도 매매춘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

그 중 기지촌의 매매춘은 기존 매매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남근 중심성과 인간의 성마저도 이윤창출의 도구화하는 자본주의의 비윤리성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미군의 기지촌 여성대상 범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적인 모순까지 다층적으로 얹혀 있는 지점이다.

여성문제연구회 한울타리는 대표적인 기지촌 지역인 동두천에 위치한 '새움터'라는 곳과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새움터'는 동두천 지역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몇 분의 간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이 불규칙한 그 곳 여성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 놀이방, 공부방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상담, 재활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주로 방학중에 일주일 정도 '기지촌 활동'을 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간사들이나 그곳에 찾아오는 기지촌 여성들과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하는 기회를 갖는다.

물론 연대활동이라는 것이, 향락산업을 만연시키는 자본의 비대칭적 구조의 철폐,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개선, 범사회적인 성윤리 제고 등의 거시적 활동과 병행되지 않는 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힘들고, 그 곳 여성들의 삶을 한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문제라는 것이 단지 성의 테두리에 갇힌 문제가 아니라 중층결정된 각종 사회적 모순 속에 한 고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여성문제를 보다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학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기층 민중 여성(용어상의 문제는 의논해서 정리해 주십시오)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기지촌 활동의 의의를 작으나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짧은 시간이나마 학생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상호 침투하여 서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이, 계급을 초월한 자매애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관악여성모임연대 조직과 위상

☞ 조직·여모의 조직!! 그 실체는...

조직 체계

연대테이블과 그 속의 3팀들--기존 학생회 체계와는 구분되는 연대체로서 현재 관악여성모임 연대의 활동단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관악여성모임연대에는 98년 4월 현재 공대 여성 위원회, 마음 006, 법대, 사범대 성정치 운동모임, 사회대 여학생 자치회, 생활대, 인문대, 자연대 女聲, 한울타리(이상은 가나다 순이며 아직 개인차원으로 참가하는 단대나 단위의 경우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 등 관악내의 성운동 모임 단위 9개가 속해 있으며, 이들 단위의 95, 96학번 중 여모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97년 여모 연대테이블의 임원이 된다. 아직 각 단위별 상황이 많이 다르고 서로 지향하는 바에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관악 여성운동모임의 연대체로서 함께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98년 연대테이블의 구성체계는 크게 성폭력학칙제정을 위한 공대위, 연대사업부, 여성연대회의 참가팀 등의 세 개로 나뉜다.

조직체계의 특징-내가 기존운동보다 관악여성모임연대를 더 좋아하는 이유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관악여성모임연대는 자신의 생활속에서 학생회의 수직적인 체계방식이나 몇몇에 몰아박음으로써 조직이 굴러가는 식의 활동방식을 지양한다. 어디어디의 짱이라는 것은 우선은 품나고 영웅과 같은 존재로 미화되어 왔었고 그만큼 그 존재가 지어야 할 부담은 매우 컸다. 또한 피라미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계에서는 보통 아래로부터의 문제제기나 고민 등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그러다보니 상부조직에서 명령하달식으로 내려온 문건들을 받아서 휘사선택해서 치루어 내기에만 바빴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런 방식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사줄 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운동, 진정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는 운동이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가능한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조직체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관악여성모임연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타의 총녀학생회나 조직들과는 다르게 실지 관악 내에 있었던 성운동 단위들이 연대를 해서 이루어졌기에, 다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제안과 실행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길은 멀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노력에 경주할 것이며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적 방식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 이는 우리가 '여성주의'라고 칭하며 이루려고 하는 성운동의 방식과도 연결이 되기에 더더욱 고민할 부분이다.

그러기에 여모내에는 팀이라는 이름으로 융통성있는 활동단위들이 존재한다. 이번 년도 같은 경우는 성폭력학칙제정공동대위라는 직접적인 목적단위가 있는 동시에, 남성문화 투성이었던 이 사회에서 여성문화를 찾는 노력을 시작할 연대사업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도 더 작은 단위나 팀-소모임 등등-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모로서 혹은 연대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 위상

98년 여모가 관악운동내의 운동단위로서 선지 2년째다. 그전에 여추로서 성운동을 시작하려고 힘겹게 고민했던 것을 포함하면 1년이 더해지는 것이고 서서히 관록이 쌓여간다는 생각도 든다. 기본적으로 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관악내부의 성운동단위들이 늘 함께 어떤 내용과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의 고민의 깊이를 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었기에 더더욱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다. 이미 다른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운동하면 학생운동의 노선의 한 일부를 도와준다거나 총녀학생회라는 형식으로 굳어져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만큼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를 총녀학생회 정도의 위상으로 생각하든지 아님 여자애들이 모여 힘 자랑 하고 싶어하는 식으로 여겼는지 '관악여성연대모임'이라는 별타를 날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성연대'모임이 아니라 '여성모임'연대이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존재 방식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있는 각각의 단위들은 다들 성운동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함께 모아갈 수 있는 합일지점을 찾을 가능성을 열고 있는 공간들인 동시에, 각자의 삶에서 나온 자발성으로 만들어진 자치운동단위들이다.

이런 식의 활동방식은 작년(97년) 학생회 선거에서 여모가 자치단위로서 벌여냈던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항상 학우들과의 소통을 외치면서도 결국 누가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실지 삶과 운동이라는 알맹이는 빠진채 공허한 구호들만 외쳐대는 자리이기 일쑤였다. 그런 속에서 자치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여모는 각 선본들에게 우리 활동과 운동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는 동시에 98년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해 함께 할 것을 강제하기도 했었다. '학생회를 잡게만 해달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슈퍼(?) 운동 세력은 더 이상 운동으로서의 존재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정치권들과 다를 바 없는 식의 관료적인 모습이나 대표를 내세우는 형식의 운동 체제 또한 바뀌어야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녀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모임연대라는 이름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계속 정진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더 많은 무게의 힘겨움이 따른다. 여성주의라는 이름

으로 우리의 내용과 활동을 정의내리는 데까지 동의를 이끌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말은 무한한 고민과 실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아니 더욱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를-는 일반 학우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우리의 활동의미는 무엇이나는 것이다. 총녀학생회라는 형식을 거부하고 각 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해서 만들어진 여모, 그리고 그 세력의 확장과 동의지반이 넓혀져 옴은 분명히 희망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일 거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는 물론, 학생사회에서조차 성운동이라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여모 창립 이래 줄곧 이야기해 왔던 학내 성폭력 사건이나 학칙제정에 대해서 학우들은 아직도 몇 년전의 반응과 별 다를 바 없는, 즉 별 변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꼭 적대적인 시선을 가진 학우들만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학우들에게도 우리는 종종 과격하고 잘난체 하는 소수여성집단으로만 비추어질지도 모른다. 성운동이 몇몇 과격한 사람의 이익집단으로만 보이지 않고 진정 우리가 말하는 여성주의적인 운동을 개척해 나가는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 우리의 위상과 존재와 결부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1. '신교수 퇴진과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여모가 생기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다. 하긴, 몇 년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여모가 여성운동단체를 꿈꾸며 탄생했지만, 여모는 우리 학교에 총여가 없다는 이유로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중재자로 나서야만 했다. 몇 달이 멀다하고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에 치여서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 게다가 개개의 사건별로 마무리가 지어질 뿐 어떤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사건들 사이에 해결의 일관성이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부산 동아대에서 성폭력 관련 학칙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왔고, 우리는 이를 이용해 우리의 방식으로 학내 성폭력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 것이다. 97년에 95들이 중심사업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을 정한 것도 더 이상 학내 성폭력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학내에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담론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97년도 선거 때 각 정치조직들에게 당선과 낙선에 관계없이 '공동대책위'를 꾸리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실제적으로 공동대위를 꾸리고자 한 것은 겨울방학 전부터였다. 처음 우리가 생각한 방식은 단대에 책들을 모두 세우고, 여모의 2-3인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안을 구상하지 않고 책들을 먼저 보내달라는 우리의 말은 총운위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다. 단대책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견이 '어떻게 일도 없는데 단책을 보내냐'는 단쟁들의 생각 때문에 결국 자연대와 사회대만 결합하는 식이 되어버렸다. 실제적으로 지금 공동대위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의 총학 1인, 사회대 1인, 자연대 1인 나머지는 여모사람들... 아니 실제적으로 다 여모 사람들이다. 이는 우리가 정치조직들에게 정식으로 제안서를 주지 않았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암튼

공대위에 여모사람들이 아닌 운동세력을 끌어넣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공대위는 신정휴 교수의 공판이 2월 10일에 남에 따라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뿐 아니라 신교수 퇴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리플렛이나 집회등은 다들 신교수 퇴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학칙의 한계성과 학생들사이에서의 운동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운동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인문대와 사회대가 학생회칙이 제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자연대를 제외하고는 타 단대에서 학생회칙제정의 움직임은 아직 시작단계이다.

사실 공대위가 지지부진하게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원했던 형식의 공대위가 꾸려지지 못했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일을 맡아서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어떤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지금현재 공대위는 세 개의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농를 올리고, 탄력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개로 나누었다. 본부나 여학생부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맡는 팀, 자보의 내용을 생산하고 선전을 기획하는 팀, 공청회 준비팀 이렇게 나누어 일하고 있다.

곧 공청회가 있을 것이고, 본부와 투쟁 역시 다른 자치운동과 함께 5월에 중점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뽀뽀스런 신교수를 내보내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2. 연대사업부

연대사업부는 관악 여성 모임 연대(이하 여모)의 그간의 활동이 성폭력 학칙제정이라는 사안에 집중된 나머지 장기적인 지향점을 모색하는데 소홀해 왔다는 반성 하에서 학내에서의 여성적 담론을 생산하고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9일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다. '여성 주의'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채워넣어야 하는지 어떠한 옷을 입혀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보편적 인간'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적으로 무차별하게 강요되어왔던 남성성에 대한 반정립으로서의 급진주의적 사고(즉 남성성에 대한 완전한 배제)를 넘어서 오히려 여성의 긍정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재기함으로써 남성적인 일편향으로 경도 되어 왔던 인간성을 풍요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여성주의'의 진정한 의의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즉, 우리는 일그러진 남성성이라는 '정립'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의 여성성이라는 '반정립'을 넘어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합명제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주의'라는 용어가 일반에게 분리주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주의'의 이름아래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밝혔듯이 '인간'이라는 개념자체가 이미 일그러진 남성성으로 크게 오염되어 있어 우리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드

려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관악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국 사회의 진보 운동은 대개 계급 모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이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관악내의 운동 역시 그러하다. 90년대에 들어 부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성에 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성모순은 또한 그것을 해결하려는 성 운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관악 운동 세력 안에서 기반을 얻기 위한 타협책으로,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성모순의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 하에 '계급 모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선불리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의 중심 태제로 삼는 것을 주저한다. 왜냐하면 그간의 여성 운동이 연대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서 기존의 '중심'운동에 이용당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대를 통하여 상호 연대 주체의 공통의 이해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상대의 해계모니가 우리의 문제의식을 함몰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성'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연대는 여성이라는 동일성에서 출발하여 상이한 집단의 여성들과의 연대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집단 내에서의 여성적 연대가 부재한 연대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다른 운동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머무르게 될 뿐이며 결국 우리는 연대를 통해 어떠한 이해도 실현시킬 수 없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여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모순과 교차되는 다양한 억압들에 대한 저항에 동의하고 다른 운동과도 연대해야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계급, 집단 여성간의 연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전략 지점으로 정할 것이다.

3. 그러면 이러한 인식 하에서 연대 사업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을 이제 끝낸 탓에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관악의 왜곡된 성담론을 바로 잡고 나아가 새로운 인간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담론을 생산, 유포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몇몇 대학에서처럼 관악 여성 신문을 제작하는 등의 매체 사업이나 대동제 기간이나, 그 외의 기간에 여성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의 문화 사업을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서 말한 문제의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풀어 나갈 것이다.

3. 연대회의

0. 들어가며

-우리는 왜 연대를 해야하는가?

다른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운동 역시 사회적인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여성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발생하므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의 단위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반면 아무리 자그마한 목소리일 지라도 여러 곳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때는 그것이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연대를 하는 이유이며, 진정 연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다른 단위와 연대를 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1. 연대의 지점찾기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현재 18개 학교가 모여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활동해 나감에 있어 우리는 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억압... 성폭력을 그 연대의 지점으로 삼고 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연대의 지점으로 선택하였는가? 그것은 모든 단위가 현재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심각하며, 가장 문제시된다고 동의하기에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연대의 지점은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다른 모든 단위가 '아! 이것이다.....'라며 그것이 명확하게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연대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연대의 지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현재 성폭력 뿐 아니라 다른 문제지점에 대해서도 많은 단위가 연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연대모임'-가칭) 그만큼 많은 단위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명확한 연대의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대는 지금 뼈적거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확고한 연대 구축하기

우리의 연대는 아직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 어렵듯하게 우리의 연대 지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달라 공고한 연대가 아닌 뼈적거리는 연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설픈 연대는 연대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만으로도 각 단위에게 짐만 던져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연대회의는 그러한 어설픈 연대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 이처럼 확고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의하에 연대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연대회의에서 행하고 있는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은 어설픈 연대를 넘어서 공고한 연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방향성이 명확하고, 각 단위에서 동의하고 있는 바가 명확하므로 연대의 구심점이 확고하

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이제 연대회의는 확고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동의하에 연대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동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앞으로 이루어질 '여성연대모임(가칭)'이 역시 공고한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연대지점만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단위가 활동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3. 나오며

-아름다운 연대를 위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연대를 꿈꾼다.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는... 이를 위해서는 연대의 지점을 찾는 것도, 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동의할 지점이 있다...

우리 모두 연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4. 97년 활동평가

0.

잠시 판 얘기부터 시작하자. 최근 일련의 학우 집단내 성폭력 사건과 관계된 공개 사과문과 그에 따른 반응들을 보며, 지지 부진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지난해 여모에서의 활동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보여진 사건들의 반응 수위를 떠나, '여론화'되었다는 자체를 두고 볼 때 그러하다. 그간의 대학에서의 논쟁이라는 경험들을 두고 볼 때, 하나의 이슈가 여론화된다는 의미는 이미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심한(적어도 우리가 볼 때 그러하다) 실제 논쟁과 상관없이 여론화란 약자(즉 정의로운 자들, 우리...)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나마 현재의 대학이 담보한 가치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의 여모 활동이란 이런 식의 여론화라도 유도해 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결실이란 것이 느리게 나타날 지언정 말이다.

1. 포스트

4월이면 이제는 기념일이 되어버린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날이 있다. 4.19... 이날 치루어지는 펄박질은 이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그와 더불어 1년 중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거리에 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에 많은 운동단위들과 더불어 여모에서도 대중적 사업으로 이 펄박질을 준비해왔다.

97년에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포스트를 운영하였다.

96년 8월 연세대에서 연행된 여학우들에 대하여 경찰들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성폭력을 자행하였다. 당시 관악 여모(추)에서는 8월말부터 이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펼쳤으며, 97년 포스트도 이런 대응의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여성 마네킹을 배치하고, 종이로 만든 하얀 가면을 착용하였다. 한총련 사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그 사건에 대해 알지 못 할 97 새내기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포스트였으나 펄박질 중간의 포스트였기에 내용을 충분히 전달 할 만한 발언을 하기는 어려웠다. 뛰어오던 행렬을 멈추고 정렬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여모에서는 올해(98년)도 많은 다른 운동단위와 함께 하나의 포스트를 맡아 우리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하에 치루어진 이 행사에서 우리는 여성, 혹은 남성이어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되도록이면 쉽고 친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시각매체(?)를 사용하였다. 여성 혹은 남성을 억압하는 많은 기제들을 선정하여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락카칠을 하도록

하였다. 주제 자체도 쉽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눈에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으나, 올해는 비가 오는 관계로 많은 단체들이 포스트를 거치지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 이후 그 모형들을 자바로 만들어 학관앞에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2. 고사

지난 해 관악여성모임연대와 약대학생회는 대동제 기간 중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사"를 지냈다. 그것은 우조교와의 2심공판에서 승소했던 신교수가 여전히 기세 당당하게 남아있는 현실과 당시 불거졌던 약대 구교수 사건에 대한 대중적이고 문화적인 대응이었다. 판은 오후 한 시 총장 잔디에서의 고사와 이후 가면과 피켓행진, 본부에서의 호루라기 불기와 도서관에서의 유인물 배포로 구성되었다.

실질적으로 97년 1학기 여모의 첫사업이었던 고사는 다음과 같은 미비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대동제라는 시기의 문제이다. 총학생회는 대동제 행사를 각 자치단위에게 총장잔디를 배정하는 식으로 제안하였는데 고사는 이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그러나 고사가 실질적으로 문화제의 성격보다는 집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제라는 산만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를 진행하려한 것은 매우 무리였다. 그리하여 학내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겠다는 투쟁의지의 표명이었던 고사는 어쩔 수 없는 '자치단체'인 관악 여모와 '사건의 당사자'인 약대의 자족적이고 조용한 의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대동제라는 기간을 활용하려 했다면 게릴라적인 퍼포먼스가 오히려 낫지 않았나 싶다.

둘째, 이와 관련해 학생회와의 관계설정의 문제이다. 누누이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자치단체인 여모와 이들에게 무한한 지원의 의지를 표명했던 총학생회는 결과적으로 여모라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을 뿐이지 그것이 대중적인 운동이 되는 실질적인 동력은 마련해주지 못했다. 다른 종류의 사건과는 달리 성폭력에 관련된 일은 유독 일반 과나 단대 학생회에까지 널리 유통되지 못한다. 신교수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크로에 고작 200여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학생회 중심의 동원양식에 대한 맹목적인 고수로 생각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회 대중운동 관점의 간과가 실질적으로 초래한 것은 성폭력 해결의 주제와 문제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 주제는 언제나 여성단체일 뿐이라는 사실로 귀결되었다. '집회'로서의 고사는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을 가졌다.

셋째, 연대체 틀의 한계와 조직미비이다. 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시작단계에 있던 여모가 일방적으로 3학년에게만 맡겨짐으로써 연대체의 느슨함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또 이것은 인간적인 유대감의 부족도 포함한다). 그것은 결국 제대로 된 준비의 부족을 낳았고 그것의 힘은 강행은 연대체가 결속되는 결과보다 구성원들을 지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연속성의 부재이다. 그렇게 한 번의 기획으로 쇠잔해간(!) 여모는

97년 내내 느슨한 연대로 굴러감으로써 그것의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못하고 이후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

3. 대동제 영화상영

성폭력 학칙제정이란 거시적 목적을 잡고 모인 95들이 처음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자 했던 판이 대동제였다. 딱히 학내에 더 이상의 이슈가 없어진 상태에서, 대동제 사업들에 부여된 의미는 내용의 문제라기 보단, 독립(?)한 95들 개인과 그들 단위들간의 결속(연대보다 좀더 구체적이거나 한)에 더 가까웠다. 고사, 집회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전체 대동제에 대한 평가는 접어 두고 영화 상영 부분만 실무를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여성영화라는 모호한 가치보다 가장 구체적 성폭력을 담은 필름을 찾아보니(더욱이 우리 설정에 맞는)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얼마 전 끝났던 1회 여성영화제의 프로그램을 많이 참고했다(자고로 흥행성은 제 1순위의 고려 대상이다) 급진적 여성들의 혁명에 관한 외국 영화 <불꽃 속의 태어나서>만큼 아름다운 초이스가 없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대여가 불가능했다.¹⁾ 결국 한국 단편 영화 중 직접적 성폭력을 다룬 지하철영화<있다>와 간접적으로 남녀의 대결 구도를 암시한 <웰컴>을 선정했고, 영화제작소 청년에서 각기 5만원이란 거액으로 비디오를 구했다. 이 두 작품은 합쳐도 15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많되 정신없고 집중 안되는 개막제 때 상영했다. 예상은 했지만 땡(?)한 반응이었다. 사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영화란 수단에 회의론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여성의 영웅이란 만지는 남자의 손과 화장실에 떨어지는 생리혈의 직접적 클로즈업 등 예상되는 부분에서 터진 남자들의 웃음이 충분히 그 판에서 어색하게 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행함이었었던 것 같다. 한계도 있지만 그나마 자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성폭력이 의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 <피고인>은 차분한 분위기의 폐막제를 노렸으나, 인원 부족, 기자제 등의 말썽으로 상영되지 못했다. 기자제 잘못이라기 보다 지친 막판 대동제에 모두 열의가 없던 탓이었고, 실제로 몇몇 집단만이 남아 술 마시는 총장 잔디의 분위기에서 영화를 틀 마음도 없었다. 장편 영화를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틀려면 '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모임 단위의 감상이나, 작은 토론판을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4. 97년 5월 21일 서울대 중앙 도서관에서 있었던 성추행

1997년 5월 21일 오후, 피해자인 조OO(사범대)가 중앙 도서관 제2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보니 열좌석에 앉은 사람의 손이 가슴에 닿아 있었다. (좌석과 좌석 사이의 거리는 약 90센티미터가 넘기 때문에 우연히 닿았다고 할 수 없고 고의적인 성추행이

1) 대부분 비디오로 출시되지 않은 영화제 등에서 본 외국 영화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물론 여성문화예술기획 등에 일하는 인자가 있거나 친한 이가 있어 땀글고 올면 가능한 하다.

다.) 이에 소리를 치고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요청하자 가해자인 김 OO(전주대 재학중)은 책을 챙겨 들고 자리를 떠서 도망을 가려 했다. 이에 법과 대학 92학번 한 학우가 가해자를 잡고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총학생회로 와서 중재를 요청하였다.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김 OO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OO은 당시에 책 한 권만 가지고 서울대로 들어온 상황이었다. 성추행의 동기를 물어보자 '나는 지방대 학생이고 사회에서 보이는 지방대에 대한 인식과 엘리트인 서울대에 대해 무시해 보고 싶은 생각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가해자, 총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김 OO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조 OO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서 공개사과를 원했고 총학생회도 같은 입장이었다. 처음에 김 OO은 설명으로 공개 사과를 할 경우 자신을 보아온 주변의 시기에 금이 간다면서 거부하였으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개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조 OO, 김 OO, 관악여성모임연대는 공개 사과문을 서울대와 전주대에 동시에 게시하고 이후에 전주대 총학생회를 통해서 김 OO가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하였다.

5. 구교수 공대위

구교수 공대위는 4월 10일 총학생회, 관악 여성모임연대, 약대 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전 우조교 공대위, 피해자 정선배와 같은 피해자인 정선배의 후배가 모여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후 정식 명칭을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대 공동대책위원회'로 하고 활동을 해나갔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오래되었고 사건이 불거져 나온 계기가 복잡한데다 이미 약대내에서는 진상 조사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공대위 차원의 명확한 활동계획을 잡기가 어려웠다. 결국 학내 홍보 정도밖에 할 수 없었고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목표를 정선배에 대한 구교수의 피해보상, 구교수 퇴진, 학칙 제정으로 삼고 학내 해결을 위해 본부와 약대 교수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구교수가 정선배 등의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써 본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식이었고 정선배가 고소를 당함으로써 이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대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약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을 관악 차원에서 받아 본부와 검찰에 제출하고 여름 대동제에는 여모와 공대위가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고사와 시위를 하였다. 검찰에서의 심의 결과 오히려 구교수가 무고죄로 검찰에 의해 고소되었으며 공대위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와 구교수 퇴진, 학칙 제정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구교수에 대한 재판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방학을 맞이하게 되고 공대위의 방중 활동도 거의 전무하였다. 2학기가 되면서 공대위의 중심이었던 총학 집행원이 활동을 그만두자 공대위의 활동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위의 활동 상황을 보면 공대위가 오히려 우조교 때 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고 호지부지하게 사라져버렸음을 알 수 있다. 제2의 우조교 사건이라고도 불리면서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

심을 보였지만 정작 본부 측에서는 회피하려는 태도였고 학우들의 반응도 미지근하였다. 물론 공대위의 활동이 부족한데는 공대위 내부에서의 문제점도 있었다. 먼저, 공대위 구성원들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활동에 대한 감이 부족했다. 총학측의 경우 여모에도 동시에 속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학대표라고는 하지만 총학측에서는 그 한 사람에게 전부 맡겨버리고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따라서 총학에서는 공대위의 활동을 회의 때 보고하고 문제는 여모에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모의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여모측의 대표는 형식상으로는 필요하지만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말았다. 약대측은 공대위에 참여하면서도 약대 내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다. 대학원 자치회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기 보다는 도와준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전반부에만 약간 참여하였고 정선배는 재판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빠지면서 점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대위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상황보고하고, 서로 조율하고 관악 차원의 일이 필요하면 하는 정도였다. 또한 실제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로 모든 부담이 여모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재판의 진행에 따른 본부의 책임 회피로 학내에서의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학칙 제정으로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모내부에서 학칙 제정팀을 따로 구성하여 준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지지부진하였고, 원칙대로라면 여모에서 준비해서 공대위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대위 차원에서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대위가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못한 것은 활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빠지게 되고 방학이라는 공백기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구성단위와 공대위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공대위가 단위 대표들이 모인 협의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라면 좀 더 확실한 역할 분담과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필요한데 제대로 되기 못했기 때문이다.

7.. 선거

평가에 앞서... 6개 총학생회선본들은 결의한 정책 합의문을 보자.

하나, 98년 학생회에 '성폭력 학칙제정'을 책임 있게 전담할 기구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외부에서 이 사안을 담당하고자하는 단체 혹은 위원회가 마련될 시, 그것을 학생회 내부기구로 구성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담당기구의 위상에 상관없이 학생회는 98년 일년 사업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을 상정하며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하나,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선본은 학칙제정사안에 공동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다. 지난해 여모의 사업 중 가장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선거라는 모든 과정과 의미부여는

단 위의 몇 마디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그야말로 실무적 사업이었다. 선거의 목적은 자료집에서 밝혔듯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선본들(단대, 동연, 총학 수위)을 대상으로 한 정책로비이며, 성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려내고 98학생회 주요 사업으로 상정시키기 위함. 둘째, 선본에 상관없이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관악, 나아가서는 대학사회내 성운동의 현실과 필요성을 알려내는 것. 첫 번째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평소 주류운동(?)에의 비판이 많은 여모였던 탓인지, 해이했던 모임이 선거를 앞두고 효율적 결과물을 내려는 결의도 있었고(사실 선거 때란 관악의 모든 운동권들이 조급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어느 사업보다 훨씬 빨리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로비 식의 정책은 관악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도였기에 내용외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했고, 이 부분, 구체적으로 각 선본의 정책국과 만나거나 물 미팅을 조직하는 일들은 94학번들의 도움도 있었다. 자료집의 발간을 중심으로 한 선거에서의 내용생산은 성폭력 학칙제정을 중심으로 우리 쪽에선 기왕이면 조야하나마 관악의 여성운동을 정리해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이같은 시작의 열기에 비해,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지만 각 선본의 선거에 여모와 관계없이 한두 사람이 결합하고(절대 이것을 경계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이유로 한 두 명의 탈선(?)이 생기면서 막판 글들을 모으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 한 두명에게 편집을 책임 지운 상태에서 누락된 글들이 생기는 등 분담을 좀더 철저히 하지 못한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본격적 선거판이 시작되면서 원래 목적의 두 번째 부분, 즉 일반 학우들에게 알려 나가는 방식은 거의 포기되었으며, 각 단대의 모임들을 중심으로 선본 만나기에 버거웠다. 막연히 이들의 선전판을 탈 수 있으리란(특히 총학판)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아예 자료집 부수도 줄이고(덕택에 우리의 선거 자료집은 회귀본이 되어 버렸다), 피세일 한번, 피씨, 자보 등을 제하면 그야말로 로비에만 기댄 선거사업이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보면, 선거 당시에는 진정성을 증명시키는 진심 어린 동의에서였던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던 모든 선본이 우리의 시도를 환영하며, 받아들이려(혹은 배워보려) 노력하였다. 그 이후의 평가는 솔직히 여모 대표들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현실적으로 이후 당선된 각 선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각 단위체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8. 97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활동을 돌아보며...

지난 96년 여름, 연세대사건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9개 학교의 여성운동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가 꾸려졌고, 서명운동, 문화제,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이 있었다. 이후 이 모임에서는 각 학교 여성운동 단위들이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활동들의 어려움과 한계를 풀고자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각 운동단위들의 연대의 필요성, 성폭력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의 필요

성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97년 4월, 다른 학교들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여 약 18개 학교들이 참여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국민대, 성균관대, 서울대의 성폭력사건이 공론화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성연대회의에서 이의 대책추이를 공유하면서 각 사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성명서는 각 학교 성폭력사건의 해결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성폭력사건에 대한 좀 더 공신력 있는 입장을 낼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각 사건에 대한 대책논의를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연대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었다.

연대회의가 구성되었음을 알리고자 6월 4일에는 성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각 학교 여성들과 함께 성폭력근절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고, 각 학교의 성폭력 사례들을 수집, 정리하고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담론을 담아낸 자료집, '대학=성폭력 박물관'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논의와 활동들을 정리한 고전으로 활동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성폭력학칙제정과 성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에서 기존 사례의 수집과 검토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우리활동의 근거와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셀 수도 없이 많은 학내성폭력 사건들을 모두 정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집에 실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례수집과 그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료집형태로 나올 경우, 수많은 이상한 신문이나 잡지들이 성폭력사례를 선정하여 어떻게 진보적인 척하면서 성을 가습거리로 상품화시키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례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여성연대회의 등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왜곡된 성인식이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아직은 나으리라 생각된다.

97년 하반기에는 주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에 힘을 실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학칙제정의 필요성과 운동의 의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학칙가안을 공동으로 만들어왔다. 여름방학에 '청년학생한마당'에서 성폭력대토론회를 통하여 그 내용들을 대중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후에 관악여모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도 여성연대회의에 제안을 통해 다른 학교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림책제작등을 통해 여론화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학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선전효과가 더 커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각 학교들에 잘 소통이 안 되거나 학교상황들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성연대회의와 각 학교간의 소통의 문제는 관악여모와 각 단위들간의 소통문제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였고 활동에 있어서 꾸준히 대두되었는데, 진정한 연대를 이루기 위한 소통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건 중심적인 활동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우리사

회의 성인식과 성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보하고자 시작되었다. 성폭력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비도덕적인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인 폭력이기에, 여성운동단위들의 연대는 절실한 것이다.

또한, 여성연대회의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단위들의 실질적인 연대 table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정정도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각 여성운동단위들은 여성연대회의에서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연대회의의 활동은 여성운동자체가 운동세력 내에서 세력화 되지 못한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위들은 다음과 같다. (98년 4월 현재)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덕성여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서울여대 날개달기,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영남대 총여학생회, 외국어대 왕산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아주대 총여학생회, 서강대 여협(준), 홍익대 총여학생회

9. 세터 영화 상영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영상물을 만들었다. 제목도, '이갈리아 대학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로 하였다. 대학이 진보와 자유의 장인 것 처럼 생각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자 기획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대부분 각 단위에서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였고, 중간중간 인터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귀여운(?) 97들의 열연과 96들의 조연급.. 출연으로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불행히도 녹화과정에서 화면의 질이 급속히 나빠져서 누렇게 뜬(?) 화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각 단대에서 상영을 할 때 이로인하여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실제로 내용은 오히려 신입생이 아니라 97학번을 대상으로 했더라면 훨씬 전달이 잘 되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신입생이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에 관한 예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5.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진행 상황

1.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인문대 학생회칙 제정 과정

인문대 여학생 동아리 여우방은 지난 2월 말 인문대 운영위원회에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인문대 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연대테이블>을 구성하자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 학생회 2인과 여우방이 연대테이블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학생회칙 제정을 위해 각 과마다 과책을 세워 그 과책들과 다시 연대테이블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장들의 방만함과 무성의로 인해 L.T.와 인문대 운위에 참석한 과장이 두 번이나 5명밖에 되지 않아 전달되지 못한 과가 많았으며, 이후 각 과별로 찾아가 전달을 했으나 여력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책은 15개 과 중 4개 과에서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4명의 과책들도 연대테이블의 자리에 제대로 모여지지 않아, 결국 연대테이블은 인문대 학생회 1인과 여우방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별로 하려던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종교과는 학생회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학생회의 방만한 일 처리 속에서 여우방은 설문지와 자료집을 각각 250부씩 각 과마다 배포하고 해방터에서 계속 자보전을 펼쳤습니다. 자보전은 성폭력의 개념과 학칙 가안, 공개 사과의 정당성 여부, 성폭력 경험에 대한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공론화가 덜 된 상태에서 4월 7일 전체 인문대학생 대표자 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여우방이 학생회칙에 대하여 발제를 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공론화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물론 그곳에 온 사람들 중에 '성폭력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봤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안전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으나, 결국 40표의 찬성과 2표의 반대, 3표의 기권으로 학생회칙이 통과되었습니다. 안전으로 올랐으면 당연히 공론화하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전인대회에 참가하여야 했을 것인데, 왜 자기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불평하는 그들이 과연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문대 성폭력 사건 개요 및 처리 과정

이렇게 학생회칙이 제정되기 이틀전 인문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4월 6일 여우방을 찾아 왔습니다. 당시는 학생회칙이 없었기에 여우방은 피해자, 가해자, 여우방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어 녹음과 기록을 통해 사건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은 과신문을 만들기 위한 편집모임에서 편집이 끝나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외 두명이 잠을 자다가 일어났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발을 건들고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가 자고 있음을 확인한 후, 엉덩이와 허리,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뒤척이면 가만히 있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만지는 행동을 계속하는 성폭력을 행했으며, 머리카락까지 만지자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후배와 자리를 바꾸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날 모인 자리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사죄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

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공개사과 대자보와 1미터 이내 접근 금지, 공적인 자리 이외에서 자신과 대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가해자가 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부장임을 고려해 집부공청회 다음 날인 4월 10일 아침에 해방터에 자보를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음성적인 자리에서는 사건 자체 및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날 저녁 술자리 등에서 수 명의 사람에게 사적으로 사건을 알렸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였습니다. 또 다음날 가해자는 집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또다시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몇몇에게 사건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인대회에서 학생회칙이 통과되었습니다.

8일, 가해자의 발설로 피해자가 노출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과내에서 퍼지자, 과에서는 임시운위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계획했고, 학생 회칙에 의거한 인문대 단위의 대책위 구성에 동의하였습니다.

9일 인문대 학생회 담당자 2인, 과 학생회 임원 1인, 여우방 1인,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측 1인, 피해자측 1인으로 구성된 대책위를 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실명 공개 사과 자보문을 쓸 것과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가할 것을 가해자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다음날 10일 해방터와 도서관에 대책위 입장 자보와 함께 사과자보가 붙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공론화 이후의 움직임들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의 자보가 붙으면 반박하는 자보가 붙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의 자보가 붙어, 해방터는 온갖 자보들로 가득 찼고, 둘만 모여도 이 사건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실명공개사과가 너무 심하다든지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내용이거나 학칙제정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론이 많았으며, -마녀 사냥이라느니, 여우방이 뭘데 정계를 할 수 있느냐라느니, 갑자기 자유로운 대학 생활에 제약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느니, 남자가 여자 옆에 누워있는데 안 그럴 놈 있으면 나와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너무나 감정적이고 분노에 찬 글들이었습니다.

14일 노어노문학과는 교양학교에서 성폭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기로 하여, 여우방이 자료를 제공하고,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노문과는 성폭력의 개념과 공개사과자보의 정당성을 주제로 인문대 내에서 실사작업을 하였습니다. 15일에는 사건이 발생한 과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이후 그 결과를 해방터에 자보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불쌍하고 피해자는 독한 년이라는 등의 많은 논란 속에서 피해자가 익명으로 자신의 고통과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자보를 해방터에 붙였습니다.

이후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한판'이라는 이름으로 인문대 토론회 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회칙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 사회대 성폭력 특별 학생회칙을 제정과 그 이후

지난 4월 15, 16일 양일간의 사회대인 총투표를 통해 투표율 56%, 찬성율 82%로 사회대 성폭력 특별 학생회칙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공대위 회의에서 개강 전 논의된 바에 의해 사회대에서 준비된 일정이었다. 애초 성폭력 특별 학생회칙의 제정 의결은 단대 학생대표자 회의에 올리기로 했으나, 학생회칙의 제정이 단순히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전 사회대에 하나의 움직임으로 서, 실험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대중적 동의를 담보할 수 있는 총투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대 단집회의에서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학칙 가안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온 성폭력 회칙 초안은 4월 2일 공청회와 단대 실천단이 꾸려진 이후의 설문 작업을 통해 2차례 수정되었고, 단대 운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가지고 총투표에 들어갔다. 문제가 그 과정에서 사업이 특별 학생회칙 제정이라는 가시적인 면에서의 성공으로 귀결되었으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새겨볼 만한 지점들이 들어났던 것과 이후 학생회칙을 하나의 선언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용해가면서 그 자체가 성폭력과 성모순을 해결해나가는 운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들일 것이다.

첫째, 이 사업은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관악의 여성 단위들은 대개 자치단위였고, 학생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반목하는 관계였던 곳도 있었다. 사실 성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학생회의 마인드 부족과 어쩌면 경시라고 까지 할 수 있는 태도들은 어느 일부위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여져왔다. 이번 사회대의 경우도 학생회의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성운동과 학생회, 이중 멤버십을 가진 주체들이 있었으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지점들은 학생회의 대중력을 앞으로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포함한 여성 운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단위들과 학생회의 관계 설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두 주체의 현재적인 관계맺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논란의 언론 플레이이다. 이것은 대중 사업의 관점 중 일부분이면서 간과되는 면이 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언론의 많은 접촉이 있었다. 주로 서울대 출입기자들과 학내 언론들의 접촉이었는데, 학내에서의 홍보효과와 대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기제로 삼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돌이켜 생각컨대 사업을 함에 있어 일종의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도해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후의 과정들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운용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서는 신고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고(예를 들어 통신상 창구의 개설, 신고 양식의 작성등) 계속적으로 회칙 활용 방안을 홍보해 내는 것이다.

둘째, 실제 운영시 빚어질수 있는 마찰등에 대해 우리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헤쳐모니

를 선회해나가는 과정이다. 인문대나 중도에서의 공개 실명 사과에 대한 논쟁들은 물론 그 과정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와 공론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그러한 반목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슈파이팅이 아닌 사전 설득 작업과 성폭력에 대한 해방적 관점을 펴뜨리는 것은 앞으로 일상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회나 소모임등, 과내 학습동향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성 관련 학습의 맥아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학술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험의 축적이다. 하나의 실험은 항상 난항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경험이 쌓여져 거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만 주체들을 지치게 하고 대중활동에 대한 불신만을 쌓이게 할 뿐이다. 항상 모든 사업들이 처음처럼 시작되는 것은 의식적으로는 신선할 지라도 성과면에서는 유아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경험들을 하나의 전형으로 축적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한 평가와 전망을 마치고, 성폭력 특별 학생회칙 제정 사회대 실천단의 모토로 글을 맺을까 한다.

일상의 폭력을 넘어, 삶의 민/주/주의로

스스로 담당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6. 단위소개

1. 공대여성위원회

함께 있는 우리가 낯설지 않게

공대여성위원회는 공대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으로 96년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학생이 서너 명만 모여있어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이 현실을 타개해나가자는 뜻으로 '함께 있는 우리가 낯설지 않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관악여성모임연대의 울타리 안에서 크게는 여성운동 전반에 대해, 작게는 공대현실과 우리의 전공과 관련된 '과학기술에서의 여성, 과학과 여성, 여성 과학기술자' 등의 주제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6년 가을부터 대동제에서 전시전, 거리전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97년 공학제에서는 '이제 여성의 눈으로 과학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페미니즘과 과학 하기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97년부터는 새터에서의 성폭력을 막기 위해 자보전, 부문 마당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98년 새터에서는 새터 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여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내에서 각과에 소수로 흩어져서 존재하는 공대 여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행사로 97년부터 '공대 여학생 새터'를 주최했습니다.

공대여성위원회는 학년과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공대의 문화를 바꿔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공대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성문화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여성운동 전반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여성소외와 공대 현실에서의 해결방안 등을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서울대학교 동성애자/이반 인권운동 모임 마음006

관악여성모임연대의 연대단체인 마음006은 95년 5월 마음001로 출발하였다. 이성애자의 인권을 100으로 볼 때, 동성애자의 인권수치를 나타낸다는 006은 현재 우리 사회, 특히나 대학 사회 내의 동성애자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준다. 마음006은 96년부터 관악여성모임연대의 연대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문제와 성적 소수자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음006은 특히 매년 개최하는 이반영화제를 통해 학우들에게 이반 정체성과 이반 인권운동에 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낯은 편견들을 없애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관악여성모임연대의 다른 연대단체들이 주로 학내 여성문제에 집중된 단체들임에 반해 마음006은 어찌 보면 여성문제와는 무관할 것 같은 성적소수자 문제에 집중된 단체이다. 허나 억압기제의 동일함과 현실적인 연대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반 인권운동 모임인 마음006의 연대는 당연한 귀결이다. 아직까지 관악여성모임연대와 마음006 사이의 가시적인 연대 사업은 없었으나, 마음006 내부에서의 페미니즘 세미나 활동과 관악여성모임연대 연대 테이블 참가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앞으로의 연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마음006의 회원은 현재 관악내 여/남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trans-gendered)를 비롯한 성적소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커밍아웃(coming-out) 문제를 고려해 아직까진 이성애자의 가입을 금하고 있다.

3. 여우방

안녕하세요, 인문대 여학생 동아리 여우방(女友房)입니다. 여우방은 말그대로 인문대에 있는 여학생들의 모임입니다. 14동 224호에 아담한 보금자리를 마련해놓고 있구요, 오후 5시까지는 여학생 휴게실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방을 찾아오시면 문앞에 귀여운 여우가 삐죽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직접 다양한 여우들을 만나 보실 수 있겠지요.

여우방에서는 무엇을 하나구요? 페미니즘, 성 등을 주제로 하여 함께 공부를 합니다. MT, TS 등으로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요. 요즘은 일주일에 두 번 세미나가 굴러가고 있는데, 페미니즘 이론 세미나와 문학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여성학 관련 책 또는 외국의 페미니즘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 세미나는 진행이 되구요, 문학 세미나는 페미니즘 문학을 읽고 세미나를 하는 것인데, 약간 변형을 가해서 여성문제와 관련 있는 영화를 본 후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방학이 되면 공개 세미나도 합니다. 지난 겨울 방학에도 관심있는 많은 학우들과 함께 했었고, 다가오는 여름 방학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5월 11, 12일 쯤에는 제2회 여우방 영화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눠보고 싶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우방에서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계획해서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우방에 있는 여우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독어독문학과 등의 인문대 학우들이 모여 있구요, 여우방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여우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구요, 누구나 여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여우가 되어 함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4. 자연대 여성

다시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유유히 부딪히는 女聲

안녕하세요 여성은 말이죠 97년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성으로서 살아감. 그 뿌듯한(T.T/〇) 삶의 경험들 하지만, 사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성들만의 소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94 모 선배와 95 모 선배들의 발의로 모임을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들만의 모임으로 시작했구요, 페미니즘 사상과 그리고 포르노와 같은 우리 주변의 문화들에 대한 세미나를 겨울 방학 때까지 진행해 왔어요. 현재는 남성들의 얘기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남성들도 회원으로 받고 있어요.

새터데 있었던 성폭력 촌극 사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 자보를 쓰는 등, 최근 외부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요. 현재 위의 사건을 계기로 자연대에는 '여성권 확보와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연대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같이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연대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을 제외한 동아리의 재생산이 매우 힘든 구조여서요. 지금 내부의 길을 잡아 나가는 것과 새내기를 받아서 재상산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조금 머리가...-(

하하, 얼마 전에 모두 머리를 모아 정한 모토 멋있죠. 그렇게 당당히/유유히 부딪혀 나가며, 함께 나가면 되겠죠 여모 파이팅

추신. 여모안에선 그런 오해가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오해가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성방이 女聲이 된 것입니까? 뭐 그런건데, 절대 아니구요. 女聲과 성방(=자연대 성정치 연구모임)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해 왔구요. 성방은 최근에 공식적으로 해체했습니다.

5. 한울타리

한울타리는 1987년 3월 11일 탄생한 동아리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자신의 육체적 성 때문에 억압받는 존재이거나 억압하는 존재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소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학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단위들과의 결합을 통해 여성문제와 관련되는 각종 교내외적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문

제가 고립된, 단일한 모순 지점을 가진 문제가 아닌만큼 여타의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울타리가 동아리 연합회의 사회분과에 속해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따라서 역사나 철학, 경제 등에 관한 세미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실천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세미나 같은 경우 페미니즘 이론들도 당대의 철학사상의 조류나 맥락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필수적이다.

그밖에 구체적 실천으로는 성억압, 계급모순, 민족적 현실의 3중 굴레를 표출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의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새움터'라는 곳과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다양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동아리를 찾는 성원 다수인, 동아리 라는 집단의 성격상 '여성문제 연구회'라는 전문적 특성을 구현해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으므로 앞으로 잘 해나가리라 본다.

6. 제 41대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

총학 성정치위원회는 지금까지의 학생회 체계에서 그 동안 성문제를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총학에 성정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첫째, 기존 주류운동체로만 인식되었던 학생회 라인에서 이른바 '부문운동'이라고 사고되는 성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학내 여성운동단위와 학생회의 기존의 매끄럽지 못하던 관계-학생회가 단위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단위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라는 순환구조-를 해소하고 이미 라인과 정치적 경험이 확보되어 있는 총학생회와 성운동에 대한 나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성운동단위들의 새롭고 안정적인 연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총학 성정치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1인 및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의 체계는 총학 단위에서 벌여내는 사업 및 여모와의 연계 사업으로 이루어 진다. 총학 집부 구성 이후 벌여낸 활동에는 신환제 사업 및 현재 여모와 함께 진행중인 신교수 퇴진 및 성폭력 학칙제정 공대위 활동이 있다.

성정치 위원회는 학생회와 자치단위간의 불신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여성운동이 대중 운동속에서 세력화하도록 힘을 실어주는데에서 그 존재 의의를 찾는다.

7. 벗: 벗다. 벗기다

우리는 벗기 위해 모인다.

우린, 모이면 선배고 후배고 동기고 얹혀서 열심히 벗는다.

단순하고 목적 지향적인 이데올로기들, 고정관념들을 어느 정도 벗고 나니

이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조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제 -脫-의 나머지 한뜻 '벗기다'도 함께 해야할 것 같다.
(관악 여도에 연대하기 전까지는 단지 여성학을 공부하는 학회였지만
이제는 활동력, 실천력 있는 학회를 꾸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활대 모든 학우들의 페미니즘화, 아니 전라를 꿈꾸는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여성학회 -脫-

8. 법대 성정치 연구 동아리 '평지'

'평지'는 97년 1학기 95,96학번들의 여성학 세미나 모임에서 출발하여 97년 2학기 정식 동아리로 발전하였습니다. '평지'라는 이름은 평평할 평(平)자에 땅 지(地)자가 합쳐진 것으로 성(性)으로 인한 높낮이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97년 2학기에 동아리가 되면서 97학번들을 받았고 98년 들어 98새내기들이 7명 정도 들어와서 적지 않은 인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탄탄한 체계가 꾸려지지 못했지만 그대신 새로 시작하는 동아리의 참신함으로 많은 일들을 벌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때 97학번들과 다섯 차례의 페미니즘 사상 세미나를 했고 성폭력 학칙제정과 신고구공판에 관련된 자보를 두차례정도 게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남녀 서로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으로 '성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녀간에 서로 다른 왜곡된 성문화가 형성되는 과정(남성의 경우 포르노 등을 통해, 여성의 경우 하이틴로맨스 등의 애정소설을 통해)을 살펴보고 이것이 드러나는 현상인 강간죄, 음담패설, 성폭력과 원치않는 임신 등의 주제로 평지 구성원들이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과 간단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동아리방은 법대 15동 411호에 있으며 다른 두 동아리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주제 외에도 현대사 등의 사회과학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기지촌과 정신대 문제, 성폭력 학칙 제정 문제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직접 방문등을 통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평지의 앞날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세요.

9. 사범대 성정치 운동모임

우리 사범대 성정치 운동모임은 96년 당시 사범대 학생회장인 강지영(93)선배가 사범대 내의 자치운동기구로 설립했으며 김지연(국어교육 94)선배가 초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름 방학 중 '참여·자치·연대 학생 대회'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내용성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

며, 당시 교양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함께 가을 대동제에서 성문화제 '性, F에서 A+로'를 기획하여 사범대에 성문제를 제기하는 모임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차현정(영어교육 95)선배가 모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어진 우리 모임의 고민은 '사적 관계의 민주주의'로 수렴되어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봄 대동제에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의 영역(가족, 선후배, 과 모임)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을 영상물로 담아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구교수 사건에 대응하는 관악여성모임 연대의 활동에 동참하면서 가을에는 '성폭력 학칙 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사범대에 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보전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민강(수학교육 96)이가 사범대 성정치 운동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온 고민을 심화하여 '이제 사범대 성정치 운동모임의 활동방향을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인 '사범대 성정치 연구모임'을 실천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사범대 성정치 운동 모임'으로 변경하고, 우리의 문제의식과 활동의 큰 틀 및 방향을 사범대인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범대 성운동의 거/듭/나/기'자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둘러싼 모순의 공간을 '가부장제적 사회'라고 규정하고, 그속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고착된 성역할과 우리의 문화에 용인된 폭력성,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의 확대체인 나이 주의, 권위주의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생 교양 학회 교사들과 함께 공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사범대의 자치 규약으로서 성폭력 학생 회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범대 성정치 운동 모임'은 사범대를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성의 이분법 및 온갖 차이를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합/니/다.

10. 사회대 여학생 자치회

높은 목소리

우리는 그녀의, 그녀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도서관 복도를 울리는 구두의 또각또각대는 소리나

가끔 적막을 찢어놓는 높은 웃음소리,

화장품과 남자친구와 자식걱정들로, 오직 그것들로만 가득차 있는 얘기들을
기억하는 건 아닌가?

사실 그녀들은 세상의 반의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꼭 반을 채운 적은

또는 그렇게 인정받거나 주목받은 적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들 아는 것처럼 그녀들의 목소리는 연약함과 열등함, 혹은
(傾國之色, 그리고 魔女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반대로 세상을 뒤엎을 위악의 표상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광장에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생리대의 테잎을 뜯어내는 소리까지 경계해야 했다

물론 광장에 들어설 수 있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져간다
그러나 그녀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표적으로 대처 수상이 그러하였듯이
목소리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들의 몇몇은 자신의 소리를 혐오하여 다수와 꼭 같은 소리를 내려했다
그녀들은 그들과 같은 톤으로 노래를 불렀다
자기분열을 일으킨 몇몇은 하이 소프라노의 불협화음을 만들기도 했다

당신은 어쨌든 '높은 목소리'라는 이름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 혹은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미 '암탉의 울음소리'를 떠올렸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변성기를 거치지 않아 아동과 별다른 없는 톤의 미성숙한 음성을,
또 다른 이들은 전체 여성들을 결코 대표하거나 대변하지 못하는
무절제하고 전투적인 몇몇 여성들의 목소리를 연상했을 것이다
또한 제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높은 목소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힘들게 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지도
그리하여 높은 목소리를 경원할 지도 모른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세상을 높은 목소리 하나로 가득채울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음이다 어우러짐이다
우리는 그때도 분명히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목소리를 아름답고 힘차게 가다듬는 일과
함께 연습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건 바로 그런 합창이고 연습 그 자체이다